



통권 45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5. 7. 10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오엔인권위원회는 한국에 처음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싸인씨를 파견했다. 이와 관련해 민가협, 민주노총(주), 언노련은 6월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를 가졌다. 주발제에 나선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제인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적·사실적 사례를 이야기한 후 "한국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 완전히 후진국"이며 "정부가 열악한 인권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례로 3자개입 금지조항(김선수 변호사), 언론(손석춘 언노련 정책실장), 가요사전심의제도(정태춘, 가수), 그리고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정진상 경상대교수)이 거론되었다. 이후 자유토론 시간에 토론장을 찾아 120여명의 참가자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은 후싸인씨는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인권단체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증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넬슨 만델라 초청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 양심수 석방을 다시 촉구한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정부 초청으로 서울에 왔다.

한때 세계 최장기수로 세계 여론과 양심의 비호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리고 27년이란 오랜 구금에서도 자기의 뜻(양심)을 굽히지 않고 끝내 백인통치자들의 이른바 ‘아파트 헤이트’ (인종차별정책)를 폐기케 하였으며 다인종 총선거에서 마침내 60%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던 그를 인권투쟁의 승리자로 환영과 관심을 갖는것은 결코 새삼스런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환영과 관심 못지않게 이땅의 처참한 인권현실 때문에 민족적 수치심마저 드는 일 또한 사실이다. “단 한사람의 양심수도 없다”고 장담하는 초청자로서는 얼마나 떳떳한 처지일지 모르겠지만 6월 10일 현재 464명의 양심수가 갇혀있고 ‘넬슨 만델라’보다 더 오래 감옥에 살고 있는 양심수만도 20명이나 되며 45년, 44년 갇혀있는 진짜 세계 최장기수가 바로 이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앞에서 수치심 뿐 아니라 민족양심 모두가 무너져 내리는 자괴감마저 갖게 하고있다.

사람의 생명과 존엄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 존재한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에 전 세계의 양심이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요즈음 요란스럽게 외치는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는

인권과 같은 보편가치의 공유에 있는 것이다. 특히 ‘넬슨 만델라’의 방문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가 두나라 사이의 현안을 다루는 ‘국가수반’만이 아니라 초청설명처럼 27년 갇혀있던 양심수였다는 사실과, 그의 일생을 통한 투쟁이 정치인으로서의 정권장악에서가 아니라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투쟁한 인권운동가이기도 한 때문이다.

‘넬슨 만델라’가 1990년 2월 ‘빅터 버티스’ 형무소를 나올 때까지 여러해 동안 많은 여론매체들은 그를 세계 최장기수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가 복역했던 27년보다 그때에도 13년이나 더 오래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김선명 노인을 비롯하여 적어도 30명 넘는 사람이 만델라보다 더 오래 이땅에서 갇혀 있었다. 이들은 살인강도 짓을 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으며 부실공사를 한 파렴치, 흉악범도 아니었다. 민족문제 해결의 정치적 신념과 인간적 양심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들이 사상전향을 하지 않아 영원한 무기수로 묶여있는 처절함에 비한다면 ‘만델라’의 옥중투쟁은 부러운 면마저 있다. 인종차별로 고립된 백인통치자가 교육정책으로 갇혀있는 ‘만델라’에게 ‘폭력포기’, ‘거주지 제한’이란 석방제안을 들고 나왔지만 그는 그 비밀 협상안을 단호히 거부한 채 끝내 무조건 석방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무장투쟁(물론 ‘국가전복기도’이다)을 선언하고 그의 동지들이 실천하고 있는 데도 감옥을 나올수 있는 반면 분단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통일해야 한다는 자기의 민족적 양심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묶여 매고

있는 것이 이땅의 인권현실과 대비되고 있다. 세계는 대결의 시대에서 협력공존의 시대로 변하고 있다. 동서 냉전 체제가 그러했고 세계의 화약고라 하던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수천 년 대결을 잠재우며 공존의 대화노력을 하고 있다. '넬슨 만델라'가 '움콘도웨 시르웨' (민족의 투창)이라는 단체를 ANC(아프리카 민족회의)안에 따로 두고 초대 사령관으로 백인정부를 상대로 무장투쟁을 해왔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 석방된 뒤 91년 '아파트트 헤이트'를 폐기케 하는 협상을 했으며 ANC 의장으로 93년 전인종 총선거와 "흑백정권 공유"라는 대타협을 이루어내, 자신을 탄압했던 국민당(백인정권) 대통령 '데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된 것은 평화와 공존에 대한 대타협 정신이었다.

이처럼 인종과 민족이 다르고 체제와 제도가 다른 국가사회에서도 타협과 평화공존은 오늘의 세계적 추세이다. 하물며 같은 말과 같은 풍속, 생활양식으로 수천년을 한 핏줄로 살아온 우리의 처지에서랴. 그러한 민족적 각성이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었고 2.26 남북합의서 발효였다.

남북은 이미 사상과 체제를 떠나 대결과 경쟁을 그만 두고 서로 협력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세계의 추세가 그렇고 남북사이에도 기본합의가 있었다. 홍안의 청년이 70이 넘는 노인이 되고 20년, 30년, 40년 넘게 독방에 갇혀 살고 있는 병약자들에게 무엇이 민족사회에서 격리시켜 놓아야 할 이유가 된단 말인가. 사

상, 양심의 자유는 빛바랜 선언이 아니고 더욱 철저하게 국제협약으로 보장되고 있다.

한 인간에게 있어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름없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상 전향제도(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는 문명사회의 부끄러운 인권침해일 뿐이다.

우리는 백화점 붐과 현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마저 살려내려는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며 구조대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일체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존귀함과 인간에 대한 존엄 때문이었다. 죽고 사는 극한 상황에서 구조대상자의 도덕성, 인간성을 따질 염도 내지 않았다. 생명의 존엄은 그 무엇에도 우선되었기 때문이다. 꼭 들어맞는 말은 아니지만 45년을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은 마치 무너져 내린 건물 틈에서 살아나려는 발버둥에 비유될 수 있다. 그것은 감옥에 가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처절함이다. 그 오랜 옥고에서 얻은 질환과 외로움과 억압, 감시, 고립상태는 가뭄으로 말라가는 웅덩이의 물고기처럼 생명의 한계상황 그대로이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 꺼져가는 생명을 무감각하게 지켜만보고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사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그것만이 바로 넬슨 만델라를 초월할 올바른 의미가 될 것이다.

어머니가 울고 있다

편집부

버릇 때문에 아침 7시에 일어나 4대 지방선거 투표를 하러 갈 때만 해도 왕복 4시간 거리를 어떻게 가야 안 막히고 잘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이사를 한 탓에 전에 살던 곳에 가서 투표를 끝내고 아침 먹고 집을 나서니 벌써 10시가 되었다. 얼른 계산을 했다. 4시까지 출근이니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그럼 2시간 남는데 2시간 동안 충분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중점입니다. 내리세요.”

지금껏 중점까지 가 본 기억이 없다.

서울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달려간 마지막 지점에 어머니는 살고 계셨다.

“우리 정희? ...”

평생을 일 속에 살아온 어머니의 굵은 손마디는 ‘정희’라는 이름 속에 말을 잊지 못하고 연신 눈가를 맴돌았다.

“미안해 ... 정희 들어간 지 3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이렇게 정희 얘기만 하면 자꾸 눈물이 나”

결혼도 하지 않은 스물 여덟의 젊은 여인에게 7년이란 족쇄가 채워진 것은 92년 대통령 선거와 함께다. 대학을 다니면서도 옷 하나

6월말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늦게 자는

좋은 것을 탐할 줄 몰랐던 함정희(31세)씨가 92년 추석을 집에서 보내고 자취를 하려는 곳으로 집을 나서려 할 때 집에는 정희씨를 확인하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오고 집을 나선 정희씨는 집 앞 건널목에서 건장한 청년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소리 한번 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건널목 저편에는 문방구를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말이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정희씨의 행방을 애타게 찾던 부모님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 들었다. ‘국가안전기획부’라는 발신인을 밝히며, 구속 내용인즉 강원일보, 군사부문 도서 및 자료 목록, 한국농업 관련 도서목록 등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는 신문과, 도서관에 가면 목록별로 분류되어 있는 책 제목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엄청난 국가 기밀이 되었고, ‘국가안전기획부’라는 곳에서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단체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한노동당’도 ‘남조선 노동당’도 아닌 ‘남한조선노동당’이라는 어정쩡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남한조선노동당 지휘했다는 북한 권력 서열 22위의 이선실이라는 할머니 공작원은 70살의 나이에 안기부에게 왕성한 활동 내용을 알려 주고 여러 문제점만을 던져 준 채 우리 곁에서 묘연히 사라져 버렸다.

“판사가 7년을 선고하길래 나는



함정희씨의 대학(상명여대) 졸업사진

판사님한테 가서 무조건 빌었어. 아이구, 판사님. 7년은 너무 길어요. 한 5년 정도로만 해주세요. 우리 정희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하면서. 다른 엄마들은 소리도 지르고 항의도 하곤 했는데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 혹시 정희에게 무슨 해라도 될까봐 짝 소리 못했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소리라도 맘껏 질러 보는 건데. 나도 참 바보지...”

어머니는 남한조선노동당이 뭔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고 산다. 단지 착하니 착한 딸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차디찬 감옥에서 7년이나 보내야 된다는 것이 어머니를 아프게 했다. 동네 반장을 맡으시고 '서울신문'을 애독하시던 정희씨 부모님은 딸의 사건이 터지자 30여년 동안 정을 주었던 동네를 떠나 아들 내외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시고 두 분의 삶의 기반인 문방구도 정리한 채 외부 사람들과 연락을 피하면서 살고 계시다.

“가까운 친척들도 일체 연락을 끊더라구. 정희에 대해서 묻지도 않아. 딸 하나 있는 거 정희 나올 날만 기다리며 살지. 딸이라도 하나 더 있으면 이런 저런 속에 있는 얘기라도 할 텐데 누구한테 가서 이런 얘기 하겠어. 그저 우리 두 노인네 서로 의지하며 살 뿐이지.”

어머니는 정희씨 사건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잘 모르신다. 단지 정희씨 평소 성격과 간간히 말하던 내용으로 조국의 통일을 바라고 혼자만 잘사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바라다 사건을 겪었을 거라 짐작만 하신다. 앞에서 서술한 함정희씨 사건의 내용은 민가협 의 자료와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나름대로 편집한 것이다. 다른 민가협 어머니처럼 '투쟁적' 이지도 못하다. 그러면서도 정희씨 석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목요일마다 손주 돌보는 것을 정희씨 아버지께 맡기고 목요일집회에 참석을 하신다. 목요일집회 후 다른 집회나 모임 등에 참석하고 싶어도 손주를 봐야 하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셔야 한다.



▲함정희씨의 어머니 장성례(67세)님. 어머니께 필요한 것은 딸의 자유다. 자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깨어있는 사람들의 손길이다.

정희씨 아버님은 올해 일흔 하나시고 어머니는 예순 일곱이시다. 손자 손녀의 재물을 보면서 일생을 정리하실 연세이다. 그러신 두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의 면회를 위해 한 달에 한번 원주행 기차를 타신다. 집에서 가까운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서 원주행 버스를 타시면 편할 텐데도 굳이 그 먼 서울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신다. 원주행 버스비는 왕복 8천원이 넘는 돈이고 기차는 경로 우대권 덕분에 그래도 왕복 2천원 정도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돈도 아까워 자주 가지지도 못한다. 한 달에 한번 힘들게 다녀오셔서는 다음 면회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한달을 보낸다.

생활비를 대주며 정희를 이해하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지만 함께 아들 차 타고 면회까지는 말씀은 못 꺼내신다. 간간히 책을 보내 주는 모습에 만족할 따름이다. 머느리 보기가 그리 편한 것도 아니다. 이 모든 사정 때문에 어머니는 허리가 몹시 불편하시고 백내장 증세가 심하신데도, 누구에게 고통을 호소하시지도 못하고 아버님만 아신 채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다. 오직 딸이 나올 날을 기다리며.

어머니와 얘기를 한 시간은 2시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 분명 쉬지 않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도 기억이 없다. 전달 5개 항목에 22개의 질문 내

용을 준비해 갔었는데도 질문지를 보며 한참을 기억해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조금씩 겨우 들려 왔다. 어머니를 취재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 그랬다. 만나고 나서 바로 그날 원고를 쓰라고 그래야 쓰기가 쉽다고. 그러나 이 글을 마치는 데는 1주일이 넘게 걸리고 있다. 그동안 환경을 조성하여 몇 번을 컴퓨터 앞에 앉았으나 계속 실패를 했다. 함정희씨를 생각할 때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의 과대 포장에 앞서 한달을 손꼽아 기다리며 원주행 기차를 타기 위해 서울역을 향할 두 노인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동안 보아 온 민가협 어머니의 모습은 사건이 있는 곳이면 제일 먼저 달려가고, 감옥 안에서 투쟁 소식이 있거나 부당한 사건이 일어나면 밖에서 끝까지 싸워 양심수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다. 집회 때면 늘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셨다. 그러기에 어머니의 모습은 늘 강하고 의연해 보였다. 그러나 그런 강한 모습의 뒤에서 우리의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사랑하는 자식을 빼앗겨서, 남편을 빼앗겨서 그 슬픔이 한이 되어 소리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계셨다. 그동안 민가협 어머니들의 아픔을 감싸안을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어머니의 강함에 박수만 보내 왔다. 마음의 엉킴을 잡기가 힘들었다. 덕분에 글을 써야 할 시간에 발로 짹짹 밟아 가며 생전 해보지도 않은 이불빨래를 하고 농정리도 끝냈다. 빨래 방망이도 하나 마련했다.

평소, 사건이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족의 몫으로 돌렸다. 또한 유명 단체의 대표가 구속되었을 때와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 사건에 연루되어 활동하던 이들이 구속되었을 때 관심의 정도도 달랐다. 민가협 어머니는 모두 강하시고 또한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그 강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양심수 가족 중에는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생활비에 쫓기며 사시는 분들이 있는 생각은 미처 못했다. 가족의 고통은 가족의 몫으로만 생각했으며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밖에서 도와줄 거라 짐작만 했다. 물론 정희씨도

대학동기들이 이러저러한 간행물과 책을 넣어 주며 면회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님의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그 고통은 금전적인 고통도 있지만 속에 담긴 애기를 터놓고 쏟아 놓을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건강이 좋은 상태도 아니다.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강하게 사시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은 거짓이었다. 어떻게 강해질 수 있겠는가. 김영삼 정권이 집권한 후 양심수에 대한 사면 조치나 감형, 특사로 풀려 나는 경우가 전무한 상태에서 어떤 희망이 두 분의 용기에 힘을 실어 줄 수 있겠는가.

감옥에 계신 분들은 신념이 있기에 힘은 들지만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이유도 모른채 어느 날 갑자기 자식과 남편을 빼앗겨 버린 가족에게는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남편의 말대로 나는 울보다. 어머님과 얘기하면서 울고, 다녀와서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울고, 글을 쓰면서도 두 번을 더 울어야 했다. 그러나 나 또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정희씨 어머님을 잊게 될 것이다. 단지 힘들게 사시는 노부부가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한 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하겠지만 자신이 없다.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원이 천이다. 깨어 있는 사람이 천명이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어머니에게는 큰 용기일 수 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 후원회원 천 명은 좀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민가협에서 일하고 있는 간사 다섯 명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후원회원이 모여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머니를 도와줄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벽이면 잠에서 깨어 감옥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우리의 어머니가 슬피 울고 있다는 것을.

소중한 인생일지

김성림 30세 주부

따르릉 따르릉

후원회 감사 전화였다. 부탁 반 협박 반의 원고청탁 이었다. 전화받는 도중에도 선영이의 호기심과 실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밖으로 나가려는지 제 신발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

“선영아, 에이 지지...” 이렇듯 전화받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느긋하고 여유있게 지낼 수가 없다, 선영이 때문에.

지난 1월에는 드디어 낙성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생각만 하다가 한발짝 발을 내디딘 것이다. 마침 다른 후원회원들도 만날 수 있었고 선생님들께 인사드리고 지내오신 애기도 들을 수 있었다.

조 선생님은 특히 선영이를 이뻐하셨다. 마치 고향 땅에 두고오신 어린 딸을 생각하시듯... 처음에는 선영이가 낯을 가리더니 선생님의 끈기있는 시도에 곧 안기게 되었다. 선영이가 태어난지 9개월 때였다.

낙성대 몇번 왔다갔다 하는 사이에 이제는 어엿한 15개월동이가 되었다. 돌 전에 첫걸음을 떼더니 지금은 계단도 난간을 잡고 혼자 오르며 스스로 대견해 한다. 걸음에 자신이 생기면서 매사에 자기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한다.

밥 먹을때도 숟가락을 잡고 혼자 먹으려 한다. 숟가락을 세워서 먹든, 음식을 흘리던 간에.

선영이가 여린 아기에서 똥망똥망한 세상의 탐구자가 되어갈 무렵부터 우리는 선영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 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낙성대 방문이나 후원회 산행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낙성대 할아버지들을 뵈면서 또 산행의 만남을 통해서 선영이는 보고 듣고 느끼게 될것이다.

나는 거창한 구호아래 선영이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레 배우고 익혀 자라길 바랄 뿐이다. 물론 현재 우리의 모습은 부끄러움이 더 많다.

선영이는 이쁜짓 7번, 미운짓 3번에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다가 또 소리를 지르게 된다. 내 행동, 말, 표정, 자그마한 실천 등을 늘 곁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그 조그만 우주 속으로 흡수해 버리는 듯한 아이를 보면서 나는 좀 더 나은 엄마이고자 애쓰게 된다. 왜냐하면 선영이는 우리의 소중한 人生日誌이기에...

• 김언경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회원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 언론을 만들기위해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민주언론운동협의회 회원입니다.

언론은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제4부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처럼 커다란 공룡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 공정성과 정확성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잃게되면 국민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빼앗김으로써 바보같은 국민이 되는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언론의 불공정, 부정확 보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한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생명력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러한 언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론의 인권침해는 여러가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사이므로 장사를 하다보니 저지르게 되는 잘못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사들이 마감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기사를 써서 그대로 보도하다가 오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보다는 상업주의에 빠진 언론사들이 서로간의 경쟁에 의해서 '알고 쓰는 오보'를 만드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예로 지난해 서해 페리호의 선장이었던 백운두씨의 생존설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언론은 백운두 선장이 살아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경쟁

적으로 만들어 보도하였습니다. 언론으로서는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자가 유유히 살아서 어디론가 도망갔다는 선정적인 말이 흥미로워서 계속 떠돌었지만 그들의 오보는 백운두 선장의 가족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이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죽었기를 바랄 수 밖에 없었던 부인은 자신도 사건의 피해자인데 이웃들에게조차 따돌림받은 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언론사들은 좀더 충격적이고 단정적이고 박력있는 기사를 쓴답시고 터무니없이 과장과 왜곡보도를 하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권을 잔인하게 유린하게 된 것입니다.

언론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두번째 이유는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잘못, 편집상의 잘못으로 오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보는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사 외부적 요인으로서 외부의 발표나 보도자료, 즉 관급자료를 믿고서 확인없이 보도해서 일어나는 오보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언론이 가장 많이 취재하는 곳은 행정부와 경찰, 안기부,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배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급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관급자료는 한마디로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그 자료의 뉴스 가치나 사실여부, 게재정도는 언론사들이 정의의 눈으로 판단하고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예로서 작년 10월에 숭실대 김홍진 교수와 정현백 교수가 독일 유학중 북한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안기부의 발표를 언론이 마치 확

인된 사실인양 그대로 보도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김, 정 교수는 외국유학 중 북한 측과 접촉한 사실이 없으며, 북한 장학금과는 전혀 무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신문사와 방송사를 제소하였고, 중재가 합의되어서 언론은 정정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정정보도가 아니라 처음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경찰과 안기부의 발표를 지나치게 신뢰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부터 마치 그 혐의가 확인된 사실인양 확대, 발표함으로써 빚어지는 인권침해는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경찰과 안기부의 발표를 취재, 보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혐의 일 뿐이지, 최고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혐의를 마치 사실인양 확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확실한 인권침해인 것입니다. 특히 경찰이나 안기부의 주장을 "경찰에 의하면"이라든가 "안기부의 발표에 의하면"이라는 주석을 달지 않음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보도는 매우 잘못된 인권침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이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하셨을때, "감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이 말을 고의적으로 왜곡하여 "문목사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당시의 공안정국에서 이 보도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문목사님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를 매우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인권침해는 많은 국민

들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피해임으로 가볍게 여겨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쉽게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는 바로 오늘 나 자신에게, 여러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자신에게 닥쳤을 때, 한 개인의 힘만으로 언론이라는 공룡과 맞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입은 인권침해는 정정보도, 경제적 피해 보상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정한 의미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의 일이 아니니 가볍게 여겨야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두 힘을 모아 언론의 수용자로서의 권리와 힘을 언론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저희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언론의 인권침해에 분노하고 함께 비판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글은 지난 6월 29일 민가협 목요집회에서 후원회원이기도 한 김언경님께서 발표한 글입니다.

푸른그늘을 만들어주는 환한 마음

편집부

5년된 백화점 붕괴!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다.

온 나라가 초상집처럼 우울하고 하늘도 잿빛으로 낮게 깔린 그 다음날 우리는 평촌으로 향했다, 주체할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친 마음으로 찾아간 평촌에는 청송녹죽의 굳은 절개로 어둔 역사를 뚫어 우리에게 푸른 그늘이 되어 주시는 김병권 선생님(74세)이 기다리고 계셨다.

어지런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드리고 들어선 선생님댁 책꽂이에는 선생님 나이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의 최신 서적들이 빼곡이 차 있었다.

‘통일 문학, 통일 예술’에서부터 ‘김대중 죽이기’,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기사’까지.

무선통신사의 꿈

동안(童顔)에도 백발이 성성한 선생님은 1921년 경북대구에서 나셨다.

34년 대구 수창 보통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

적이 좋았던 선생님은 집안의 형편을 생각하시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시고 봉화군 춘양 우체국에 들어가신다.

그 후 전기통신사 검정시험에 합격하시어 통신시설이 있는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던 선생님은 공부를 더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신다.

“그 때는 꿈이 무선통신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우편국에 편지를 보냈지. 전기통신사 자격증이 있고 더 공부해 무선 통신사가 되려고 한다고 썼어. 그랬더니 일본에서 연락이 와 일본으로 갔지.”

당시만해도 전기 통신사가 흔치 않던 시대였다.

일본에 가신 선생님은 동경 긴자 우체국에서 근무하시며 본격적인 주경야독을 시작하셨다.

“그땐 민족에 대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반일 감정같은 것은 뽕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이름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시모세 마사기오’라고 러일 전쟁 당시 할아버지가 시모세 화약을 발명해 남작 칭호까지 받은 집안의 아들인데 그는 노골적으로 ‘천황’을 우습게 여기고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했어요. 중일전쟁이 일어나 강제입대하게 되자 일부러 팔을 비틀어 입대를 피한 사람인데, 그 사람과 교류하며 미약하게나마 군국주의 반대와 반전사상이 싹텄지.”

그러나 일본군대에 강제 입대되는 것을 피해 학교도 중도포기하여 일본을 떠난 선생님은 중국에서 생활하시다 해방을 맞으신다.

“그때까지는 일본이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독립투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그런 조직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 때 운동에 뛰어 들었겠지.”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담아 회상하신다. 조국을 등지고 남의 땅에서 뿌리없는 생활을 한 것도 선생님이겐 큰 정신적 부담이었으련만.

조국의 해방소식을 들은 선생님은 두만강을 건너 조국의 품으로 돌아 오신다.

불혹의 나이에 뛰어든 '역사'의 강물

대구로 돌아오신 선생님은 '대중신문' 사에 입사해 일을 하시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말과 글이 모두 일본말과 글에 익숙하신 터라 선생님이 일본어로 기사를 쓰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한글로 옮겨 싣곤 했다. 그러나 하곡수 집기사가 문제가 되어 미군정청과 대립하다 결국 '대중신문'은 폐간된다.

그 즈음 선생님은 경산의 꽤 큰 농금밭집 딸과 결혼을 하신다. 그 분이 바로 아직도 농금보다 얼굴이 더고우신 박운수 님(68세).

소녀처럼 수줍으시며 꼭 얼굴을 가리고 웃으시는 박운수 님은 취재를 하는 동안 조금 떨어진 곳에 자세를 바로잡고 앉으셔서 내내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하신다. 간혹 연대를 물으시는 선생님의 질문에 '어디에', '맞심디' 하는 짧은 대답만 하시며.

그 후 선생님은 전기기술을 가지고 있는 동생과 경북 안동에 '대구 전기제작소'를 차려 사업을 하신다. 해방 후 좌우의 대립이 치열한 시기였지만, 이때도 선생님은 진보 운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셨다. 그러나 선생님은 간혹 읽으시는

'개조'라는 잡지와 직접 목격한 대구항쟁을 통해서 '해방군'의 이름으로 이땅에 들어온 미군의 정체에 조금씩 눈뜨기 시작했다.

안동에서 사업을 하시던 선생님은 한국전쟁 도중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전기제작소의 기계가 흔적도 없이 폭파되어 다시 일자리를 옮기면서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전쟁복구에 필요한

건축자재 납품 등의 일을 하시게 된다.

그리고 4.19

그때 치안국 바로 옆 여관에 머물고 계셨던 선생님은 껌팔이, 구두닦이 소년들과 청년학생들이 총탄에 쓰러지는 광경을 보며 정치적 대변화를 절감하신다. 늘 한반도를 휩쓰는 격동의 폭풍 언저리에 계시던 선생님은 4.19를 통해 역사의 중심에 서실 것을 다짐하신다.

참담한 마음으로 대구에 내려 오신 선생님은 자진해 한국 사회당에 입당하신다.

늦은 40대 불혹의 나이에 시작하신 운동은 그 후 어떤 유혹에도 굽히지 않는 굳은 신념으로 현대사의 중심에서 살게 된다.

"61년 5월 10일 대구에서의 남북학생회담 추진 시민궐기대회는 아주 감명적이었어요. 붓글씨로 대회를 알리는 격문을 써 이틀동안 붙이고 다녔는데 당일날 칠, 팔백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데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생님은 대회를 치른 후 진보정당들의 합당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시다 5.16 군사 쿠데타를 맞는다.

혁명계 인사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었고 대구로 내려오다 검거되신 선생님은 '혁명재판'에 회부되어 형을 사신다. 그해 12월 불기소처분으로 8개월간의 불법구금에서 풀려나신 선생님은 정치조직 결성에 힘을 쏟으신다.

63년 미국에서 돌아와 강연을 하던 권재혁씨(소위 '남조선해방 전략당 사건'으로 79년 12월 사형)를 만나 교류를 가지며 활동을 하시던 선생님은 68년 검거되어 5년형을 사신다. 소위 '남조선 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정보부에 끌려 들어가서야 '당' 이름을 알았어요. 아마 권재혁씨가 발표한 논문제목인 '남조선해방 전략론'을 따서 정보부에서 지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남민전 '전사'

5년형을 선고 받아 73년 만기로 출소하신 선생님은 뒤에 남민전 준비위원회 서기로 활동했던 이재문 씨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치조직을 모색하신다. 당시 이재문 씨는 민청학련 배후조종(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수배중이었으나 빼어난 변장술로 오랜 수배생활을 버티고 있었다.

이 때 선생님은 다시 경찰에 불러 다니며 이재문 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를 받게된다. 그리고 경찰들은 현상수배 당하고 있는 이재문 씨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선생님을 데리고 다닌다. 다행히 저녁에는 집으로 돌려보내어 선생님은 몰래 이재문 씨를 만나 어디어디 다니며 찾고 있으니 피하라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하루는 경찰들이 "이젠 잡았다! 어제밤 이재문이가 어떤 사람하고 서대문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흥분되어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날 밤 아현동에 숨어있는 이재문씨를 피신시켰다. 그 어떤 사람은 다름아닌 바로 선생님 자신이었다.

1975년 악명 높은 사회안전법이 반포되자 지하로 아주 잠적하신 선생님은 이재문, 신향식씨와 함께 76년 2월 29일 남민전 준비위원회를 결성하신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지하로 잠적하기 전 빚낸 10만원을 선생님 속옷에 넣어 주시던 혁명가보다 더욱 강한 혁명가의 아내 박윤수님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말씀하신다.

그러나 조직 결성후 한달만인 4월 1일 선생님은 검거된다. 검거 당시 선생님의 몸엔 비상금과 남민전 준비위의 강령규약, 80% 정도의 번역을 마친 '베트남 전쟁진상'이라는 책자가 있



김병권 선생님

었으나 끝까지 조직에 대해 발설하지 않아 조직을 지키신다. 당시 선생님의 변호를 맡으신 분은 김달호 씨. (전 사회대중당 당수) 5.16당시 함께 구속되어 알게 된 분으로 변호를 부탁하자 흔쾌히 변호를 맡아 주었다. 변호사 선임료는 말할 것도 없이 인지기대까지 스스로 부담하시며, 결국 단독범으로 처리되어 3년형을 선고 받는다.

"단독 판사에게 배치되어 3년 선고를 받는데 땀 듯이 좋아 상고도 뭐도 없이 대전으로 형을 살려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복역후 선생님은 전향을 하지 않아 청주감호소로 이감 되신다.

그리고 1979년 10월 9일, 남민전 준비위원회 사건이 발표된다. 선생님은 중앙정보부로 다시 끌려가 조사 받은 후 남민전 사건으로 재입건 되신다.

"조사를 받다 신향식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받았는지 한 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해 다리를 끌며 들어 오는데...” 그날을 기억하는 선생님의 눈자위가 붉어지신다. (남민전 사건으로 이재문 씨는 81년 11월 옥사하고(당시 45세), 신항식씨는 82년 10월 처형된다. (당시 47세))

선생님은 최종심에서 15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시다가 89년 12월 21일 감옥문을 나서신다.

굳은뚱 역사에 길이 빛나리

고령에도 불구하고 범민련에 나가 통일을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하시는 김병권 선생님. 그래서 74회 생신을 맞아 19년 8개월이라는 오랜 옥고를 치루면서도 흔들림없이 통일운동에 헌신하는 숭고한 뜻을 기려 '범민련 남측 본부 동지일동' 으로부터 송수패를 받으셨다.

선생님택 벽엔 조국통일에 대한 선생님의 소망과 먼저 죽은 동지들에 대한 그리움이 족자로 남겨져 있다. 나이들어 장기형을 받아 언제 죽

을지 모를 때 써두셨던 한시를 그때 함께 감옥 살고 있던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족자였다.

深夜起坐 萬感集

獄窓明月 思故友

人生自古 誰無死

信志丹心 照青史

깊은 밤 혼자있으니 만감이 교차된다.

옥창에 비친 달 밝게 빛나고 있는데

먼저 간 동지들 생각 그지없네

사람으로 태어나 누구를 죽지 않으려면

한번 세운 굳은 뜻 역사에 길이 빛나리

상식이 통하는 사회,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왜곡된 가치체계를 바로잡는 환한 마음으로 사시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시는 선생님을 뒤로 하고 나오는 길은 더위를 식히는 시원한 바람이 우리앞에 불어오고 있었다.

7월 산행안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물이 더위를 식혀줄 수락산에서 만납시다.

당고개역-홍국사-주봉-내원암-수락산 동녘계곡 유원지-의정부

- 언 제 : 1995. 7. 23 이른 10시
- 만나는 곳 : 4호선 전철 당고개역(중착역)
- 가지고 올 것: 맛있는 도시락, 회비 3,000원

6월18일. 그날 하루종일 우리는 신선이 된 기분으로 비와 안개를 걷어내고 다녔다. 미끄러운 바위를 올라 문수봉에서 "비와서 안 나올지 몰라"하면서도 품을 잡았다.



6.1 ▶민가협 목요집회가 “노동운동 탄압 반대”를 주제로 열려 장영길 전해투 대표 부인, 한국통신 양한웅 노조 지도위원 부인, 경인 현총련 사무국장이 함께 하셨습니다.

▶민가협 회원들이 조계사를 방문해 농성중인 한국통신 노동조합 간부들을 격려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초강경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재야 사회단체들이 기독교회관에서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등)를 구성하였습니다.

▶광주지법은 오종렬(광주시의원) 민주주의민족통일 광주전남연합 상임의장에게 집시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3년 10월,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6.3 ▶노동인권대책위는 장충단공원에서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흥 ‘혜명양로원’에 계시는 임병호 선생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어지럼증으로 부근 병원에 다니고 계십니다.

6.4 ▶고 박래전 열사 추모제가 마석 모란공원에서 있었습니다.

6.6 ▶서총련 학생 80여명은 일본 전 외상 와타나베 망언을 규탄하는 항의시위를 일본문화원 앞에서 벌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면서 안국역에서 기관사를 위협해 달리는 지하철을 세우고 곤봉으로 지하철 유리창 48장을 깨는 등 과잉진압을 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조계사와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시켜 농성중이던 한국통신 노동조합 간부들 전원을 연행하였습니다. 성소난입으로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6.7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인 울산해고노동자협의회 의장 천석복(현대중공업 해고노동자)씨 등이 노동운동 탄압 분쇄와 소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있습니다.

▶민가협 회원들이 일본문화원 시위와 관련하여 구속된 학생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6.8 ▶민가협 목요집회가 ‘명동성당 조계사 경찰난입과 한통 노조 강제연행 규탄’ 하는 주제로 열려 한국통신 임금국장 박충범 씨의 부인, 민주노총 홍보국장, 진판스님, 동국대 총학생회장이 말씀해 주셨고 <조국과 청춘>이 힘을 더해주었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7차년도 제3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5월 사업, 재정보고와 6월 사업계획을 토론했고 낙성대 만남의 집 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6.9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간사로 일하시던 김영환 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운명하셨습니다. 민가협이 하는 일마다 늘 함께 해주셨던 김영환 님의 명복을 빕니다.

6.10 ▶‘제6회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가 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추모사업 연대회의 주최로 성균관대에서 열렸습니다.

- ▶ '임금가이드 라인 분쇄와 공권력 남용 규탄대회'가 민주노총 준비위 주최로 대학로에서 열려 2만여명이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했습니다.
- 6.11 ▶고 김영환 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 6.12 ▶〈후원회소식〉 44호를 발송했습니다.
▶노동인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삼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일것을 발표했습니다.
- 6.13 ▶음성 꽃동네에 계시는 유한옥 선생님께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12일 분신한 현대자동차 해고노동자 양봉수(31세)씨가 분신 32일만에 노동자들의 염원을 뒤로 한 채 대구 동산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광주, 수원 등지에서 교수, 사제, 수도자, 평신도 2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7시 명동성당에서 '성역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부천종합법률사무소 최영모 변호사는 국가와 제주교도소 조성용 과장, 제주경찰청 고석홍 보안2계장을 접견 거부와 비밀접견권 침해를 이유로 제주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6.15 ▶민가협 목요집회가 '공권력의 폭력성을 규탄'하는 주제로 열려 일본문화원 사건과 관련하여 서충련 의장등이 함께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3천여명의 불교도, 한국통신 노조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권력 투입과 현정부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시국법회가 열렸습니다.
- 6.16 ▶박흥 씨의 한국통신 노조 활동과 관련한 망언에 항의하기 위해 민가협 회원들이 서강대를 방문했습니다.
- 6.17 ▶대구 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발족식이 대구 YMCA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공동대표로 김상기 경북대 교수, 한기명 준비위원회 감사, 조영옥 전교조 경북지부장, 송필경 송치과의원 원장님께서 선출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5년형을 선고 받은 신귀영 님께서 새벽 5시 전주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하셨습니다.
- 6.18 ▶양심수후원회 6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으며 평창동에 모여 북한산의 일선사-대성문-대남문-문수봉-구기계곡을 거쳐 구기동으로 내려왔습니다. 모두 23명이 함께 모여 비와 안개로 뒤덮인 북한산 전경을 감동으로 젖은 눈빛으로 지켜보았으며, 내려와서 홍제동에 위치한 〈정도 포교원〉에서 열린 손병선 선생님 부친, 모친, 부인의 천도제에 함께 했습니다.
- 6.20 ▶불교인권위가 사무실을 안국동 인권법당 '길상사'로 옮겨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사제 시국대책위원회 소속 신부 70여 명이 성소난입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6.21 ▶옥포 대우조선에서 생산1부 노동자 박삼훈(41세)씨가 노동자의 단결과 사 용자의 각성을 바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여 1시간도 못되어 대우병원에서 운명하셨습니다.
- 6.22 ▶민가협 목요집회가 '3자개입 금지조항'을 주제로 열려 민주노총, 전노

운협 관계자들이 함께 해 최근 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구속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 씨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면서도 고문사실 유무를 따지며 '이유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사 성소난입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사과를 요구했습니다.

6.23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후원회소식〉 45호 편집회의가 있었습니다.

▶박현채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 출판기념회가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박교수님의 쾌유를 빕니다.

▶〈말〉 7월호를 교도소에 발송했습니다.

6.25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싸인 씨가 일주일을 예정으로 방한하였습니다. 보고관은 피해자, 인권단체,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제52차 인권위원회에 공식 조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6.28 ▶고 문익환 목사님의 부인인 박용길(74세, 사단법인 통일맞이 이사장) 장

로님이 동경에서 북경을 거쳐 평양에 왔습니다.

6.29 ▶민가협과 민주노총, 연노련이 주최한 "한국의 의사표현의 자유 실상" 토론회가 종로성당에서 장기수 선생님, 양심수후원회 회원, 인권단체 관계자, 민가협 회원 등 모두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로 열렸습니다. 토론이 끝나갈 즈음 아비드 후싸인 씨가 토론회장을 방문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민가협 목요집회가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를 주제로 민언협 회원, 박창희 교수 아드님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우조선 고 박삼훈 씨 장례식이 민주노총 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전국노동자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고 박삼훈 씨는 고향인 경북 영덕에 잠드셨습니다.

▶6월 영치금을 5,6월 구속된 시국양심수 136명과 미국수도교회가 지원하는 무연고 장기수 10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6.30 ▶미국수도교회 신앙공동체(조명철 목사)에서 6월 성금 375,46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수도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서경원, 김태룡 님 가족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무연고 출소장기수 5분과 만남의 집 2곳에 생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려 100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6월에 구속된 양심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동맹 사건

- 6월 9일

김성식 변은영 서승현 박지연 김미옥
김진희 지영미 최재천 권순진 문순덕
정봉철 김중석 서갑수 강진관

■ 김용진(카톨릭 노동사목 연구원) - 6월 8일

■ 조수진(동아대. 빛나는 전망 사건) - 6월 9일

노동관련 구속

■ 오명희(을지병원 노조위원장) : 업무방해

■ 윤재건(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업무방해

■ 한국통신 노동조합 : 업무방해

양한웅(지도위원) 정홍곤(총무국장)
이재숙(여성국장) 이정환(문화체육국장)
심철식(제도개선국장) 장현일(쟁의실장)
김종근(조직처장) 도남희(교육홍보실장)
박수호(교섭국장) 현경룡(쟁의국장)
김세옥(국제국장) 박충범(임금국장)
정용칠(서울 사무국장) - 6월 6일 구속
유방상(서울지방본부 위원장) 박호(중앙조직
2국장) 신규식(서울 조직홍보부장)
조재길(경기지부 조직국장) - 6월 27일 구속

■ 민주노총 부천시흥 준비위 : 집시, 특공

- 6월 3일

이재운(위원장) 박양희(사무처장)
박상수(동양에레베이트 위원장)

집회 및 시위 관련

■ 박상귀(조선대) 법원 항의방문 관련

- 6월 8일

■ 청년학생 3자개입 실천 대행진 출정식

- 6월 4일, 연세대

온창윤(연대 94) 김환중(동대 93)

윤철중(원광대 93) 김홍남(국민 91)

■ 와다나베 망언 규탄 일본문화원 화염병 시위 - 6월 6일

와다나베 전 일본 부총리 겸 외상의 한일합방과 관련한 망언에 항의하여 일본문화원에서 화염병 시위를 벌인 서총련 소속 학생 58명이 연행되어 이중 13명이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기 위해 안국역에 쫓아들어와 승객을 태우고 수서로 향하던 전동차의 기관사를 협박, 열차 운행을 강제 정차시킨 다음, 열차 내에 최루 분말가스를 발사하고 전동차 앞측 3량의 유리창 50여장을 모조리 부수고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여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양대 김영용(93학번) 학생이 심하게 최루탄을 뒤집어 써 얼굴에 수포가 생기고 2도 화상을 입어 3주진단을 받고 성동병원에 입원했다. 또한 동국대 박무연(91학번) 학생은 경찰의 구두발에 차여 갈비뼈 2대가 부러지면서 허파를 찢어 가슴에 피가 고여 호스를 연결해 피를 뽑아내고 있는 형편이다.

구속된 학생은 아래와 같다.

이경도(중앙대 95) 강국진(중앙대 93)

김상렬(중앙대 93) 홍상표(중앙대 94)

김용구(동국대 92) 김정수(동국대 91)

임용현(시립대 94) 박창기(산업대 94)

함상호(산업대 95) 이강주(산업대 95)

임 훈(산업대 95) 김우현(경기대)

이인구(전국대)

‘꽃동네’에 계신 유한옥 선생님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 한국통신 노동조합 농성간부 항의 거리시위

- 6월 6일, 총무로 : 집시, 폭력

정원섭 윤지희 오승옥 김태경(이상 수원 성균관대) 이인규 김상례 송용남(이상 고려대) 정봉식(국민대) 김동우 이규원(성공회신학대) 한병준 박종근 김남수(이상 동국대)

■ 정연덕(강원대) 장재웅(한림대) : 한국통신 연행과 관련하여 항의시위 6월 8일 집시, 화염병으로 구속.

■ 강성빈(목포대) : 집시, 특공

■ 김형창(동신대) : 94년 쌀수입개방 반대, 미문화원 항의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6월 1일 집시, 폭력법 위반으로 구속

■ 김정대(성균관대) : 전국학생특위가 6월 26일 동대문 앞에서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시, 화염병 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 신재성(한신대) : 화염병, 현주건조물 방화

선거법 위반

■ 6월 21일 - 박영태(해양대) : 지지체 관련 부경총련 명의의 유인물 뿌리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 6월 24일 - 이창규(서울대 경영대학 학생회장) : 특정후보를 비판하는 유인물로 선거법 위반 구속

■ 6월 26일 - 김명선 기영채 이석필 천동엽 서재영 문희형 김수의 박철홍 민기채(이상 전남대) : “지자체 선거에서 민자당을 심판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다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6월 12일은 유한옥 선생님의 84돌 생신이었습니다. 후원회에서는 천정연, 인권운동사랑방, 푸른영상 여러분들과 함께 생신 다음날인 13일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먼저 계셨던 ‘구원의 집’이 아니라 병원으로(꽃동네 안에 있음) 옮기셨는데 지난 2월에 찾아뵈었을 때의 건강한 모습이 아니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말씀과 병원 측 말을 종합해 보면 결핵성 늑막염을 앓으셨는데 지금은 회복된 상태라 했습니다. 오랫동안 누워 계셨으므로 다리근육이 이완되어 걷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몇달 동안 찾아뵙지 못하는 동안 많이 외로웠단 말씀을 하였고 특히 선생님 생신을 5월(아마 음력)로 기억하시면서 그때 이무도 오지 않았음을 못내 서운해 하셨다고 합니다.

후원회에서는 이런 일을 깊이 뉘우치고(사실은 꽃동네에서 자주 면회오는 것을 꺼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찾아 뵈려고 합니다.

이날 선생님께서는 걷지는 못하셨지만 밀차에 앉으시어 여러분과 함께 지난해 4월에 돌아가신 김광삼 선생 묘소를 참배하시고 대소면 천주교 성소에서 준비해간 아래위 여름옷과 속옷을 갈아 입으시고 서울서 미리 마련해 간 음식으로 뒤늦은 생신잔치를 맞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처음으로 “내가 죽게 되면 눈을 비롯한 장기들을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쓰게 하겠다”고 하시어 듣는 이 모두를 숙연케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서 건강이 좋아져 그 곳곳한 의지의 옛모습으로 통일된 조국, 그리운 가족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갈구하며 못내 아쉬운 발길을 뒤로 했습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 두번째 집수리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뜻하지 않았던 '만남의 집' 화재로 2층 모두를 고쳤으나 아래층 난방이 되지않아 지난 겨울 선생님들이 어렵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5일에 이르기까지 아래층 방 3개와 부엌 모두를 뜯어내고 새로 보일러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이 너무 깊어 계단 내려가는 어려움(지난 6월 9일, 이종 선생님께서 넘어지신 일도 있었습니다)을 덜기위해 한계단을 메워 들어가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집수리도 회원 여러분의 정성된 일손에 힘입어 거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애써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원·소·식

- ▶ 김상기, 김용안 회원이 7월 2일 옥천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행복하세요!
- ▶ 낙성대 '만남의 집' 공사에 많은 회원들이 바쁜 중에도 짬을 내어 일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음시롱감시롱, 하재, 그리고 최양순, 안일권, 이회두, 김병일, 엄주현, 김성림 회원이 1층과 2층 계단을 누비며 '만남의 집'을 내 집같이 정성껏 다듬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 ▶ 6.27 지자체 선거에서 노원구 창5동에 출마한 강정구 회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범적인 의정활동 기대합니다.
- ▶ 기독교장로회 회년선교의 집(대표 김영화 준목)에서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10년째 형을 살고 있는 4분의 장기수 분들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셨습니다.

- ▶ 이세균 선생님께서 봉천동 나눔의 집에서 독립하여 제기동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명진 한약방(964-0275)에 나가고 계십니다.

주소 : 동대문구 제기1동 1144-2호 33/6 3층
전화 : 962-1962

- ▶ 유영순 회원(27세, 학원강사)이 <후원회소식> 편집모임에서 함께 일하시기로 했습니다.
- ▶ 음시롱 감시롱 으뜸일꾼인 이병민 회원께서 사업차 미국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좋은 결과 맺고 건강하게 되돌아오시길 바랍니다.
- ▶ 서울 동북부 지역 실업계(상고, 공고) 학생들의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표방하고 나선 "희망"이 오랜 준비끝에 7월 9일, 동부문화센터에서 창립모임을 연답니다. 축하드립니다.
- ▶ 서울민주시민연합 북부민주시민회에서 7월4일 부터 6회에 걸쳐 제2기 통일강좌를 실시합니다.

7/4 : 친일파의 계보와 척결을 위한 우리의 현주소

7/11 : 미군범죄 실상과 한미협협의 문제점

7/18 : 국제정세를 통해 평화협정 읽어내기

7/21 : 사진기행을 통한 분단상흔 이야기

7/23 : 장기수 선생님,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아유회

7/28 : 8·15 통일민족대회를 위해 우리가 할 일

새·회·원·을·환·영·합·니·다

김신근 (충주시 연수동)

이광연 (도봉구 쌍문4동)

부좌현 (해마루 합동법률사무소)